

‘국어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김도성x수능완성 알파

- 문학 -

유형편: 현대소설: 김승옥, <역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 [A]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B]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러기 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C]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D]나라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E]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F]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G]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H]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I]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J]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K]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30911

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2) [H]~[K]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H]: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I]: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J]: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K]: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K]: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3) [A]~[E]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유형편: 고전문문: 이이, <고산구곡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흥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밋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모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 허야 산일(山日)이 적적헌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흥고 욱기(浴沂)란 내일 흥새
 아춤에 채산(採山)흥고 나조히 조수(釣水)흥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허야 ㉥ 시냇?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뻑뻑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흥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 관암에 히 비친다
 평무(平蕪)에 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찍워 야외로 보니노라
 ㉢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흥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흥*도 ?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흔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흥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흥: 기운이 맑고 깨끗함.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7)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8)㉔~㉑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쳐인 ㉔를 나와 ㉕와 ㉖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㉗와 ㉘는 ㉔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㉕와 ㉖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㉗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㉔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㉖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㉘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9)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絕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더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 *녹준: 술잔.
-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반송: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칼칼,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칼칼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30411

- 10)(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비해, (다)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⑤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 11)(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 → 길 → 배 →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②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③ ‘날지 않고’와 ‘끊어졌네’는 시적 공간의 적막함을 강조한다.
 - ④ ‘사람 흔적’은 ‘늙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 ⑤ ‘눈만 내리고’는 ‘늙은이’의 고독을 심화한다.

12)<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 ②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13)<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 ‘말’로 지어지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 14)(다)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애의 정서에서 유희의 정서로 나아가고 있다.
 - ② 후반부로 가면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 ④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실전편: 1회 - 고전소설: 작자미상, <김원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나.’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3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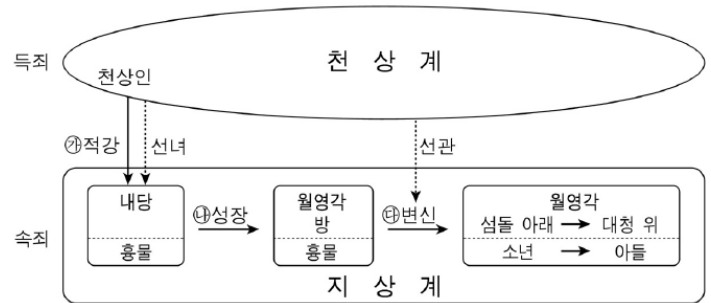
15)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흉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흉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흉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18)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실전편: 1회 - 현대소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것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통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버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어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요!”

“애들아!”

어머니의 ㉦불안함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바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 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1411

19)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20)'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22)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영호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빙긔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팡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어 온다.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는 먼지의 마당.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흠뻑 젖어 있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0911

23)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 ②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⑤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24)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25)<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1, M2, …, Mk, …, Mn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1, S2, …, Sk, …, Sn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1→S1→M2→S2→…→Mk→Sk→…→Mn→Sn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k에서 Sk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k와 Sk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실전편: 1회 - 현대시: 운동주, <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애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A]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달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운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30806

26)(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27)[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28)(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29)㉠~㉣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30)(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31)(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씩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 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실전편: 2회 - 현대시 신경림,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물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A]

[B]

[C]

- 신경림, 「농무」 -

31409B

32)(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3)(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해를 겪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할로 잡은 산돼지, 매패[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사소: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찢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흉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안조원, 「만언사」-

*조대: 낙시를 하는 곳.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한민: 한가로운 백성.

35)(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7)(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8)시인이<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9)(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40)<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엿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복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A]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B]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D]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41)(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42)㉠~㉣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43)(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44)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45)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실전편: 2회 - 현대시: 한용운, <사랑의 측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
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
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
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
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bat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bat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녀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bat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
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
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
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계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
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
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내어 봉황루(鳳凰樓)
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
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쏘이
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
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샅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31306

46)(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7)(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
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
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
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48)<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49)[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50)(나)의 ‘부뚝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뚝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뚝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뚝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뚝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뚝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51)<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앞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A]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올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30911

52)(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53)㉠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54)(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약'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55)<보기>를 바탕으로 ㉔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56)(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57)<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실전편: 2회 - 갈래복합: 이어령, <폭포와 분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는 주로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매직펜'으로 줄을 긋거나 글씨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 매직펜은 매직잉크가 든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文房具)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라 특별한 ㉠수련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아무나 눌러도 정해진 음이 울리듯, 매직펜은 ㉡누가 긋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筆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붓은 결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약손같이 부드러운 감촉이, 수줍은 듯 은근한 그 묵향(墨香)이, 묵의 깊이가 좋습니다. 추호(秋毫)처럼 가는 획에서 필관(筆管)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파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 줍니다. 붓은 좀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매직펜이 실용과 편의라는 서양적 사고의 산물이라면 붓은 동양의 정신을 담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벼룩집 속에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긍하는 뜻이 아닙니다.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糊塗)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 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派黨性)이 도리어 '시중(時中)'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本道)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붓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아 온 저에게 있어서 붓은 단순한 취미나 여기(餘技)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영복, 매직펜과 붓 -

(나)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58)(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글씨의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59)㉠~㉣ 중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60)㉡의 '누(구)'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은? [1점]

- ①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둘 중에서 누가 먼저 할래?
- ③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 ④ 그에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 ⑤ 누구든 나한테 한 명만 보내 줄래?

61)(가)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중간 노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도덕을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는 회색에 속한다. 타협이 있어야 한다.
- ②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은 그저 중간일 뿐이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줄 아는 절도에 삶의 본질이 있다.
- ③ 우리는 각자의 편견으로 물든 안경을 쓰고 있다. 인간은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식의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 ④ 세상에는 가끔 편견과 인습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려 한다. 편견과 인습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인간이 극단적인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두 극단에 도달하여 그 중간을 모두 채움으로써 인간은 위대해지는 것이다.

실전편: 2회 - 현대소설: 최명익, <비 오는 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져서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해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해인 현금이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라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 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불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서 있는 ㉧노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멧게 매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빛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

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31909

6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63)㉠~㉥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② ㉡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③ ㉢는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⑤ ㉤는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6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②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65)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실전편: 3회 - 현대시: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314예비A

6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리리’, ‘춥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67) <보기>의 맥락에서 위 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
 (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①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 ②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 ④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 ⑤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68)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④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실전편: 3회 - 현대시: 고재종, <면면함에 대하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찢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노
 ㉡ 햇살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
 ㉢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낮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명량, 「청명」 -

* 취어진: 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 위에 짙짙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 아무려면 어쩐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신는 날에.

- 고재종, 「초록 바람의 전언」 -

32009

6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7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낮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질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실전편: 3회 - 현대소설: 최일남, <흐르는 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께참은 기분을 구석으로 때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복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복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복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만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는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내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렷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쉿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 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히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뺀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최일남, 「흐르는 북」-

31606B

7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
- ②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한다.
- ④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준다.

73)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사의 의미’는 ‘민 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74)다음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과제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 ①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 노인’과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군.
-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③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④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국어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 김도성T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검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출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옅은 적막감도 씌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뿜어내는 학교 마당에서 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뚱뚱 울렸다. 짜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문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과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출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

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녀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최일남, 「흐르는 북」-

30811

75)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76)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출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출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출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7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 ③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 ④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78) ㉡와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예술은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②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 ③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
- ④ 예술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⑤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전편: 3회 - 고전시가: 신계영, <전원사시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녘 두던 밧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빗치 되야 잇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헝자스라**
불근 계 여물고 **눌은** **똥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논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계**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빅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돈비** **애내성(歎乃聲)***이 **고기** **푸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련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썬** **빗치** **옥루(玉樓)**라 **다를소나**
 청준(淸樽)을 **빗썬** **열고** **큰** **잔의** **꺾** **브어**
 ㉣ **죽엽(竹葉)** **그는** **술를** **들빚** **조차** **거후**로니
 표면헌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하야 들을 보고 **밋치** **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 **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 **오니**
 ㉤ **몸**이 **한가** **흐나** **귀** **눈은** **겨** **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를** **소나**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밍세** **깎** **퍼** **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 **기** **였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 **업** **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 **를** **원(願)** **호** **노라**
 이 **몸**이 **이러** **구름** **도** **역** **군은(亦君恩)** **이** **샷** **다**

-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로이 비춤.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남**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 **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 **하며** **어떤** **때는** **낚시** **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 **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 **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 **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 **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

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 **겁** **게** **하**고 **마음**을 **기** **쁘** **게** **하**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며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뜯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 **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 **양** **노** **래**에 **의** **탁** **하**는 **것** **이** **니**, **그** **대**는 **어** **떻** **게** **생** **각** **하**는 **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 **하며** **그** **대**로 **기** **록** **하**여 **백공**에게 **보** **내** **고**, **또** **한** **나** **자** **신** **도** **살** **피** **고** **자** **하** **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32011

7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80)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다.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헝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불근 계’와 살진 ‘눌은 똥’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다.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다.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다.

81)(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82)<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83)㉠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햏야라

<제2수>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롬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 햏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뒹헤 눈이 딛다
㉤ 모첨(茅簷)* 춘 빛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라 햏로라

<제7수>

[A] 이바 아히 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양파: 별이 잘 드는 언덕.
- * 자채: 올벼. 철 이르게 익은 벼.
- * 자해: 꽃게.
- * 모첨: 초가지붕의 처마.
- * 소년: 젊은 나이.

31609

8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85)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를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미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86)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빛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실전편: 4회 - 고전문: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째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찬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셨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감감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덴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 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A]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향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B]

-이황, 「도산십이곡」-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1209

87)(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88)(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89)(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덴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덴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덴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90)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9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전편: 4회 - 현대시: 정지영, <인동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놀린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간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 차고 넘치노나.

쫘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영, 「달」 -

* 궁거워: 궁금하여.

31809

92)(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93)㉠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94)<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 촉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얹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정지용, 「조찬(朝餐)」-

*이윽한: 시간이 지난.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예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달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덱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달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냐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태준, 「파초」-

*챙: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511A

95)(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96)㉠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97)<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려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
 [A]
 └
 ┌
 [B]
 └
 ┌
 [C]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데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D]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
 [E]
 └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

31009

98)(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99)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 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00)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01)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엮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 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 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과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30611

102)(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03)<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이미지: ……
 - 특이한 표현: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 /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얏다’를 ‘하이얏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104)(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105)(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1점]

— <보 기> —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6)(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실전편: 5회 - 현대시: 김지하, <무화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정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뭉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달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B]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정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뭉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렬*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똥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투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렬: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똥더라: 약았더라.

30709

107)(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08)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보 기> _____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09)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 <보 기> —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0)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11)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견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12)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113)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④ ‘먼 뒬’은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군.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실전편: 5회 - 현대시: 서정주, <귀족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고은, 「성묘」-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변질변질 뒹이 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눈 안에 선지가 생길:눈에 핏발이 설.
 *서도: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1606

114)(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115)<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116)(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편’은 화자가 툇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툇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툇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툇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툇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할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사소: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닳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잎들 더러 찢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께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웠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趣)를 취함이라.
낙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찌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안조원, 「만언사」-

*조대: 낙시를 하는 곳.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한민: 한가로운 백성.

117)(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18)(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 ① ② ③ ④ ⑤

119)(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120)시인이<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솔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121)(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122)<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 <보 기> —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였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실전편: 5회 - 고전문: 작자미상, <정석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려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2연>

[A]

-작자 미상, 「서경별곡」-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축루(觸虬)*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뭍음껏 솟아올라
 7을들 불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치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흔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조위, 「만분가」-

*공산 축루: 텅 빈 산의 해골.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1906

123)(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려곰'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치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124)(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흔'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7을 들 불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125)<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B]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슬이 ㉠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 외따로이 살아간들
㉤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
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뚝* 서 있거늘 저
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
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
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
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 거머희뚝: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곰비임비: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 삼대: 삼[麻]의 줄기.

31509

12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127)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8)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뚝'한 것을 향해 '워령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실전편: 5회 - 고전소설: 작자미상, <적성의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잇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리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A]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B]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욱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첩첩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발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

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짙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 한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를 삼아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 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 혐의 : 꺼리고 미워함.
- * 곤액 :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 * 사형 : 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 단저 : 짧은 피리.

31806

129)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130)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31)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1) 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인 나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서씨의 삶과 엄격한 질서와 가풍을 중시하는 현재 하숙집 인물들의 삶을 대비하고 있다. 즉, 서술자인 나는 과거의 하숙집과 현재의 하숙집의 대비를 통해 각각의 공간에 속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면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그 집'에서의 회상 장면에서 '이 집'에서의 현재 장면으로 전환된 것 외에는 장면 전환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동대문', '그 집', '이 집'에서 모두 서술자는 '나'이므로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

2) 2

추론적 사고(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서씨가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씨는 역사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조상들로부터 '힘'이라는 무형의 재산을 '가보'로 물려 받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 '힘'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공사판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경제적 보수를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해졌다. 그래서 서씨는 공사판에서 남들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데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남몰래 동대문에 올라 돌을 옮기고 그 돌을 보면서 선조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의 존재감을 긍정함으로써 서씨가 선조의 영광을 보존한다는 것이 ㉠에 담긴 의미이다.

[오답피하기] ① ㉠에는 서씨(저 사내)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③ ㉠은 창신동 집에 있을 때 안주예의 동경을 느끼던 내가 새로운 하숙집에 와서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④ ㉠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친 시간을 확인해 보는 '나'의 행동에는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 ⑤ ㉠에서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했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서 이 집안의 규칙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2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의 추리)

정답해설 : ㉠, ㉡, ㉢, ㉣는 모두 '이 집'의 할아버지가 정한 엄격한 질서와 관련이 있는 시간들이며, 특히 ㉢와 ㉣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다. 반면에 ㉠은 그런 질서와 관계 없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때를 가리킨다.

4) 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작가 김승옥이 추구한 새로운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며 [A], [B]에 나타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에 대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자들은 [B]에서 서씨 가계의 내력을 통해서 서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다는 이야기에 실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작가가 서씨의 내력을 밝힌 것은 [A], [B]에서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겨 놓는 서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A]에 나오는 '금고만 한 돌덩이'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인 소재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대문'을 낯선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대문'이라는 배경이 독자들의 실감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모습을 변형하는 수단이지만 하지만 그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A]에 나타난 서씨의 면모를 신성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⑤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씨의 '돌덩이 옮겨 놓기'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서씨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 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통하여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도 '벽파'와 '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청상'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눈'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자연물이나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나)의 '주자'는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6)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미로, 화암의 늦봄 경치와 계곡의 절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은 '홍진(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으므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은 이웃사람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이므로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③ ㉠은 술동이(술)가 비었으면 자기에게 알려라는 내용으로,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직접 와서 살펴보지 않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속의 경박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7) 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뒀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새에게 투영한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다.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벚나무 풍류를 미출가 뒀 미출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셔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 있다. ③ '담청이란 오늘 흐고 욱기란 내일 흐새 / 아춤에 채산하고 나조히 조수후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물아일체의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청류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로다 / 무릉이 갖갑다다 저 미이 권 거인고'를 통해 화자가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봄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앉아서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고, ㉡는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기는 공간이다. ㉠와 ㉡가 주위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의 거처이며, 화자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와 ㉡로 이동하고 있다. ② ㉠와 ㉠은 화자가 은거한 ㉠을 구성하는 장소로, 각각 구곡 중의 하나이다. ④ '벽계수 얹픽 두고'를 통해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주모복거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를 통해 (나)의 화자가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청류'를 굽어보고 '미'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단풍에 둘러싸인 ㉠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9)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바위를 덮은 '눈'은 문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지,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보기>의 「송애기」와 관련한 설명에서도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①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의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의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에서 '강학'과 '음풍영월'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10) 1

11) 4

12) 3

13) 4

14) 1

15)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김원은 허물을 벗은 다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에 쌓여 있었던 십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김 승상은 흉물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 선녀의 말과 선녀가 출산을 도와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흉물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말하기는 하고 있지 않다. ② 부인은 흉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웃으며 밥을 더 주고 있다. 이때 흉물이 밥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을 괴히 여기기는 했으나 근심하지는 않았다. ③ 노복이 흉물을 대한 부인의 태도를 비웃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어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 김도성T -

수 없다. ⑤ 김 승상 부부는 흉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仙童)이 된 것에 대해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알고 싶어 김원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16) 4
추론적 사고(자료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김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내실(內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의혹을 갖던 차에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김 승상에게 월 영각에 흉물이 없어지고 선동(仙童)이 앉아서 김 승상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복은 흉물이 선동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복은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이것'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흉물로 적강(譴降)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김원이 적강(譴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골육(骨肉)'은 '혈육(血肉)'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 '원(圓)'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불초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김원이 부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4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김원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 '성장'에는 부모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 과정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변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선관'이다. 따라서 ㉠, ㉡의 서사 요소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강하지 않고 죄에 대한 벌로 적강하였다. ②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 ㉡는 김원이 적강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계의 사건이 천상계의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나타낸다. ③ 부모가 ㉠, ㉡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 ㉡가 괴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를 괴이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괴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지상계의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 ㉡가 괴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허물'을 통해 ㉠를 확인받고 있다. 이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김원이 지상계에 내려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확인을 지상계의 인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계의 질서가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18) 1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승상 부부가 말한 것은 십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선동(仙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그 의미가 통한다.

[오답피하기]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름.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름.

19) 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영수)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쓸 데 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알루미늄 표찰을 떼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나'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는 것을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이지 반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학'이란 학식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인데, 서술자가 학식을 과시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술하고 있지만 액자 구조는 아니다. 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은 모두 시간의 선후가 있는 것으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20) 4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알고 ㉡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절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가 부엌 바닥과 가슴을 치는 것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비통함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② 집

이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과 '행복동'이라는 지명은 상반되는 것이다. ③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든 이유가 철거 계고장 때문이므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그것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 간 것을 본 어머니의 반응이므로 고조된 음성과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1) 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섭과의 대화에서 난장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난장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공고문'은 재개발을 통해 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가진 자들은 아파트 입주나 입주권 거래로 돈을 버는 상황과 관련되므로 '불평등'을 들춰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성실하게 살아 온 '난장이' 가족의 비극은 '욕망'으로 가득 찬 '죽은 땅'의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달나라'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달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④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는 지섭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3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여러 사람이 질서가 없이 동시에 마구 떠드는 상황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조리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

23) 1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95에서 인부들이 담벽을 허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난쟁이 식구들은 태연히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인부의 대장 눈짓에 따라 인부들은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데 즐거운 낯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꺼워하다'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이다.

[오답피하기] ②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영수는 말없이 앞만 본다고 했다. 영수가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영수와 영호가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영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이가 '얼굴은 왜 다쳤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영호는 얘기가 복잡하다며 덕분에 고기를 얻었다고 했다. ⑤ 우철은 영희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시를 서툰게 쓰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고기를 잘라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철의 태도에 대해 영희는 약간 화가 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24) 2
추론적 사고(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고 했다. 이는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바라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담벽 안쪽이며 이 시선은 인부들의 시선이 아니라 불이 가족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③ 카메라의 시선은 바로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25) 3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불이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 플롯'이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철과 영희의 이야기가 '부 플롯'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편집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4의 장면은 몽타주 기법으로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플롯과 부 플롯이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④, ⑤<보기>에서 유사성과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두 장면의 유사성은 '고기'이며, 대조점은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이다.

26) 2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그에 대한 화자 나름의 대응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새로운 터에 집을 짓고 길을 낸 후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험난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미타찰에서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고 슬픔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④ 세 작품에서 화자의 지향점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서 '갈이 돌담을 끼고 있다는 것', '풀

한 포기 없는 길' 등의 내용은 현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속성에 모순되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에 제시된 시간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저녁 무렵과 아침의 시간이 표현되어 있다. [B]에서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역설적인 표현은 아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순환되며 흘러가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아침의 시간은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②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표현에서 시간의 지속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③ [B]에서 길이라는 공간과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이 결합되어 형상화되었다. ⑤ [A]에서 아침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첫 시작을 의미하며, [B]에서의 시간은 굳게 닫은 쇠문이 긴 그림자를 드리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화자의 고뇌가 지속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28) 4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하늘'은 화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화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고 황량하지만, 하늘이 있기에 화자는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의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이상의 공간으로, 화자가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지향하는 곳이기도 하다.

29) 1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가 짓는 '집'의 위치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숯'이며, '넓은 바다의 물가 뒤'라는 것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터가 아닌 새로운 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이 지은 '집' 앞에 큰길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현실 상황에 대해 극복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속세를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30) 5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 쓰인 시어들을 살펴볼 때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메기숯'의 '메'가 산의 옛말로 향토적인 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속적인 방언으로 향토적 정감을 환기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이라는 시구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에서도 그 뒤의 내용이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며, '그대인가고'에서는 '그대인가하고'의 음절수를 줄인 것이다. ③ 마지막 행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새벽녘의 이미지를 '희게'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1) 1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비교를 통한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에서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떨어진 꽃 역시 꽃이라 하며 이를 쓸지 말라고 한다. 떨어진 꽃은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에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피하기] ② ㉠의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만들고,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린다. ④ ㉠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있지만, B에서 '나무'는 임이 그리워 병든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32) 4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대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 나 /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강한 인상을 주면서 시적인 여운을 기고 있다. 특히 '~꺼꺼나'라는 의문형 어미가 대구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여운이 강화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 있지만, '보름달은 밝아' 등으로 볼 때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33) 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화자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자가 '원시 본연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대상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 화자 자신의 모습을 표상한다. ② 영겁의 허적은 아무 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나'와 대면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④ '나'란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래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34)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 '농무'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농무를 추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악을 쓰는', '킬 길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은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정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와 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는 비참한 농촌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5) 2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흐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남시를 하던 화자는 남짓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남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36) 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가)에서 화자는 산새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남시를 하고 있지만, 남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옥척'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옥척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⑤ (가)에서 물냇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남짓대의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님'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37) 1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얹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를소나', '하물며 너 잡으리'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남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38) 2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대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9) 2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③, 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40) 4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다)는 낚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쓰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평생의 곱던 입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낚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쪼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은을 갈겠다고 했다.

41) 5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비해, (다)의 화자는 고향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한과 고생이 담긴 공간으로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 등장하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나그네 되어 떠난다는 데서 고향에 정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눈 감고 회상하는 아름다운 고향이 나타나 있다. ③ 진주 장터와 남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④ (나)는 고향을 회상하고 있을 뿐이지만, (가)에서는 고향에 찾아가게 되면 어떨 것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42) 2

추론적 사고(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내 살던 집 뒷마루’는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역시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유랑하는 삶의 지향점을 뜻하고, ㉡은 어머니의 고난스러운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 2

추론적 사고(작품을 바꾸어 쓰기 위한 구상)

정답해설 :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첫 부분의 ‘눈을 감는다’에서 현재 상황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마지막에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이 도로 애졌하다’에서는 과거 회상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는 직접 회상하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회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나)를 (다)로 개작할 경우에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현재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44) 2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나)는 현대 시조로 음수율이나 율격 구조는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현재적인 감수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 1연에서 ‘풀밭길 - 개울물 - 초집’의 이미지들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2연에서의 ‘진달래 - 저녁노을 - 꽃지집’의 붉은 색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 3연에서의 ‘멧남새 - 봄을 씹는 마을’이라는 미각적 이미지들의 긴밀한 연결에 의해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의미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율격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③ 글자 수 제한과 율격적 특징은 기존의 시조의 특성이다. ④ 사투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기보다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⑤ 3장 구조는 특별히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5) 4

비판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과 고통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나가 밤이슬을 맞으며 돌아오시곤 했던 어머니의 고생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D가 된다. 자식들을 위해 진주 장터로 생어물 장사를 하러 신새벽이나 밤에

오고가고 하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상황과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6) 4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넨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한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나)의 ‘털썩’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47) 1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나)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연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다.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48) 3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한운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의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답피하기] ① ㉡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④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 가능하다. ⑤ ㉤ ‘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49) 5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다.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50) 5

비판적 사고(핵심어의 비교 및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부뚝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뚝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님이 떠나고 난 뒤 부채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오답피하기] ① ‘부뚝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뚝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님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뚝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국어성적은 오른다. 강하게’ - 김도성T -

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듯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51) 4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 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옷'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다. ⑤ 차가운 '양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 1
비판적 사고(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53) 3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54) 2
비판적 사고(영어 읽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55) 2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56) 4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왔다가(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57) 4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58) 5
정답해설 : 두 글은 유사점이 있다. 두 글 모두 대조적인 사물의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와 (나) 모두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나)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가)에서 필자는 '붓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에서는 분수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는 있으나(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등) 이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②(나)에서의 폭포와 분수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특정한 것이기보다는 보편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가)에서는 매직과 붓을 사용했던 필자의 경험이 그대로 글 속에 드러나 있다. ③(가)에서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 '매운 지조의 선비' (나)에서 '불을 뿜듯이,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주먹질을 하듯이, 비처럼, 강물처럼 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가)에서는 붓과 매직을 통해, (나)에서는 폭포와 분수를 통해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59) 3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두 글은 대조적 사물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고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 ㉡은 모두 '폭포'와 관련된 것으로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의 '붓'의 특성과도 연결되기에 ㉠과도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다. 반면 서양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가)의 '매직'과 (나)의 '분수'이기에 ㉠과 ㉡은 연관성이 있다.

60) 5
어휘 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에서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즉,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의 '누구'도 이와 같이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 나머지의 '누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61) 2
관점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필자는 붓과 매직에 대해 언급한 후 '절충'이나 '종합'은 '은폐'와 '호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며, 아무리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간 노선이나 회색 분자, 타협을 거부하며 뚜렷한 선택을 보다 중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절도 있는 삶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나 필자는 이러한 회색을 비판하고 있다.

62) 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느끼는 병일의 생각과 공장에서 일하는 병일이 공장의 주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종락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돌아오면서,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면서 병일이 느끼는 바와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세태에 대한 비판보다는 인물의 자의식과 내면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풍자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한 반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자연이 아니라 도시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보다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63) 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병일은 사무실에서 하숙방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길에 발을 멈추고 성문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㉔는 그저 지나치다가 생각나서 돌아볼 때 보게 된 성문의 일부일 뿐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㉔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누렁던 길이 매년과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검게 달라지고 있는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㉔의 소사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급사는 급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서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사와 급사와 서사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③ ㉔는 피곤한 병일의 일상에 지루함을 더하고 있는 배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⑤ ㉔는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 자야 할 병일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64)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㉔에서 병일은 사진사와의 대화 도중에 자신의 하숙방에서 자신을 기다릴 듯한 책을 떠올리고 있다. 책이 병일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책을 떠올렸다는 것은 그가 타인의 삶보다는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볼 때, ㉔을 통해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진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신용 보증'이란 '고용 계약에서, 사용자가 고용된 사람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인이 담보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2년 동안 병일이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주인은 그런 그를 믿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병일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② 주인은 신용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병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하고 감시하면서 병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㉔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③ 병일은 자신만의 독서와 사색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랬던 그가 ㉔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병일은 독서와 사색을 즐기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다. 그런 그가 ㉔과 같이 느끼는 것은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5) 1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하숙방에서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벼룩이만이 병일을 기다리고 있다. 병일은 그런 하숙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하고 있으므로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병일은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 사진관을 찾아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숙방으로 돌아온 병일이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볼 때, 사진관은 자신의 생활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병일이 '니체'에 대해 상상을 하였던 곳은 사무실이었으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나눌 뿐 그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병일은 하숙방에 유폐되어 있을 뿐 그곳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병일은 사진관에서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진관은 일시적으로나마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일은 '나의 시간'만을 보내던 병일이 평소 하지 않았던 경험이다. ⑤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고 있는 곳은 사무실이며, 사진관에서 병일은 사진사와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면서 하숙방에 놓고 왔을 책을 떠올리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

66) 3

67) 3

68) 4

69) 2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될 수 있다. (가)에서는 '-노라', (나)에서는 '-자'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서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는 '초록 바람'을 의인화하여 바람이 '뒷동산', '강변',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는 봄날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과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조응하여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0) 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청명한 가을날에 젖어 든 마음을 닦은 고향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① '호르르'는 작은 새 따위가 날개를 가볍게 치며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②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을 '햇살이 처음 쏟아오아'로 표현하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청명'이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④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청명한 날의 정경에 대해 '아무려면 어떤가'라고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1) 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리고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대상의 유사성 때문인 것이지만 이들을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된 것, (나)에서 화자가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준다고 인식한 것은, 화자와 자연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 '별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와 '미루나무'가 교감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자연인 '수풀'과 '별레'의 소리를 듣고 화자가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한 것,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이 '바람'과 '미루나무'를 거쳐 '여인', 그리고 다시 자연인 '정자나무'에 전해지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룻'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소리와 모든 빛깔이 자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나)에서 '오월'에 자연의 공간인 '산'과 인간의 공간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임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2) 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핀잔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㉔은 '아들', '머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많은 힐난을 내소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머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㉔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사식을 모른 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㉔을 살펴보면,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㉔의 앞 발화는 '성규'의 말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 자신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73) 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구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은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 노인'의 소

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로 볼 수 있다. ㉔ '달신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연관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㉕ '역사의 의미'란 '전 세대끼리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화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㉖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74) 4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㉔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㉑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㉒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㉓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㉕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75) 2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작품으로, 제시된 부분은 주로 민 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손자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편안해 하거나 공연을 앞두고 설레며, 복을 치고 나서 자기 몫을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끼는 민 노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㉑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㉒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민 노인의 복을 치는 행위를 통해 민 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㉓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㉕ 이 부분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76) 5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

이 장면에서 '집'은 민 노인과 아들 내외(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며느리'는 아들 성규의 학교에 가서 복을 친 시아버지(민 노인)의 행위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며 힐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노인은 '성규가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회적 체면을 깎았다는 것을 아시나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피하기] ㉑ '민 노인'은 '막걸리 집'에서 손자 또래의 신세대를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㉒~㉔ '민 노인'은 '춤판'에서 아이들과 어우러져 신명나게 복을 치며 유대감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춤판'에서 '구경꾼들'은 공연 내용에 호응하여 공연자들과 함께 전통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77) 5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 파악)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냐'는 말에는, 손자의 학교에 가서 복을 친 자신을 비판하는 '며느리'에 맞서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히고자 하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㉔에 대해 상대방인 며느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㉑ ㉒에는 복을 통해 예술혼을 발휘하는 '민 노인'에 대한 '아이들'의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다. ㉓ ㉔에는 자기를 주목하는 구경꾼들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려는 '민 노인'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㉕ ㉖에는 공연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에 빠진 '민 노인'의 상태가 나타나 있다. ㉗ ㉘에서 시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며느리'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78) 2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㉔에는 복을 칠 때 모시 두루마기라도 입어서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민 노인'의 생각이 암시되어 있으며, ㉖에는 자신의 복 가락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민 노인'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민 노인'의 예술에 관한 태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㉑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㉔, ㉖에서는 찾을 수 없다. ㉓ '시대의 이상을 곳곳이 지켜야 한다'는 태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를 ㉔, ㉖에서는 찾을 수 없다. ㉕ ㉗를 통해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의 필요성을 연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㉔와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예술'에 대한 단서를 ㉔, ㉖에서는 찾을 수 없다.

79) 2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나)의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하며 때때로 낚시대를 잡고 노를 저어 조류에 따라 강물을 오르고 내리다가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강 가운데를 흘러 경치를 완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은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피하기] ㉑ ㉒에는 계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흘리고 있는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나타나 있으며, ㉓에는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여기며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㉔ ㉕에서 화자는 초가를 비추고 있는 빛이 임금이 계신 옥루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㉖에서 공백공은 자신이 탄 배가 흰 물결을 일으키고 달빛을 헤치고 나가면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㉗ ㉘에서 화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기울이는 것을 술잔에 비치어 있는 달빛을 기울인다고 말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운치 있게 나타내고 있다. ㉙에는 공백공이 벗과 함께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는 흥겨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㉚ ㉛에서 화자는 춘하추동의 경치가 아름답고 낮과 밤, 아침과 저녁에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새롭기 때문에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이 바쁘다고 말하며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㉜에서 공백공은 그물을 걸어 올릴 때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를 가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80) 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 계를 잡는 아이들과 물고기를 파는 어부의 모습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가을날 전원의 풍경이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생리라 괴로오라'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㉑ '만경 황운'은 아주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는 가을날 추수를 앞둔 들판의 모습을 '만경 황운'에 빗대어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있다. ㉒ 화자는 중앙절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내놀이'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청유형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㉓ 화자는 가을이 되어 붉은 게가 여물었고 노란 닭이 살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㉔ 화자는 밝은 '밤불' 속에서 계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물이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을 묘사하며 가을날 전원생활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81) 1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공백공은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날과 겨울날의 강물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㉒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한 후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백공의 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㉓ 공백공은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때가 없다'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대화의 상대인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 공백공은 강호에 뜻을 두고 노래에 의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고 있을 뿐,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 ㉕ 공백공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를 시간에 따라 제시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82)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작가는 공백공이 자신과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늦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아우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후,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껴 그 말을 기록하여 공백공에게 보낸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사욕 없는 마음과 사물을 초탈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㉑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며 벼슬하는 자와 달리 영화에 매달리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달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공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가는 자신이 공백공의 말을 기록한 것이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밝힌 후, 작가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말을 통해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자릉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자릉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의미한다. ⑤ 작가는 공백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그의 음성은 맑고 밝아 천지에 가득 찰 듯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작가의 평가는 공백공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83) 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강호 어조'와 한 맹세가 깊지만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강호의 은거를 긍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공백공은 자신의 몸은 비록 관직에 있지만 뜻은 강호에 두고 노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백공이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에 미련을 간직하고 있음은 드러나지만,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은 확인할 수 없다. ㉡에서 공백공은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드러낼 뿐, 그 이유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에서 화자가 늙음으로 인해 정치 현실을 체념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 한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 ㉡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의 이상 실현을 위해 임금께 맹세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며, ㉣에서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84) 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6수에서 화자는 중앙절을 맞이하여 올벼로 빚은 술이 다 익었는지를 묻고, (다 익었으면) 맛있는 안줏감을 준비하도록 아이에게 이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에서는 '자해(꽃게)', '항계(털빛이 누런 닭)' 등 미각을 돋우는 소재를 제시하여 가을을 맞이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양지바른 언덕의 풀빛은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이며, 초월적인 세계는 아니다. ② ㉠에서 꽃이 진 후의 녹음이 깊어가는 것은 화자가 인식한 계절적 풍경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6수에서는 계절적으로 녹음이 짙어가고, 대낮의 고요한 마을에 닭이 울고 있다. 종장인 ㉡에서 화자가 아이에게 노래(계면조)를 불러 긴 졸음을 깨우도록 이른 것은 전원에서의 한가로움을 표현한 것이며,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⑤ ㉢에서는 겨울의 저녁 시간, 즉 긴 밤과 저녁 식사(공죽 또는 팔죽)를 앞둔 때를 표현하고 있으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85) 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세월이 젊음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새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자 역시 새해를 즐겨 했던 젊은 날이 있었으나, '현재'의 화자는 늙음을 한탄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아히들(아이들)'에게도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 말도록 훈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늘그니(노인)'가 다른 '늘그니'를 만나 반갑고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같은 처지의 상대방을 만난 기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는 화자와 같은 처지의 대상을 만난 반가움이 제시되었을 뿐, 젊음과 늙음이 대조되지 않았다. ② [A]의 화자는 (특히 '이백발이 되었노라'에서) 자신의 '백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에는 세월의 빠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세월의 빠름을 빗댄 구체물도 제시되지 않았다. ⑤ [A]에서는 화자도 '아히들'처럼 새해를 즐겨하였으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는 현재 삶의 행복감이 나타나 있으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86) 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의 각 연에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계절적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자도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흥을 즐기고 있다. 작품의 각 연에서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제2수>에는 봄이, <제3수>에는 여름이, <제6수>

에는 가을이, <제7수>에는 겨울이 제시되어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② 앞의 네 수 모두의 종장에서 '아히야'가 등장함으로써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되고 있다. ③ 계절을 다룬 앞의 네 수에서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된 다음, 주로 '아히야'로 시작되는 화자의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④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빚은 술을 찾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이자 일상의 풍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87) 2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는 찾을 수 없다.

88) 4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4]에서 두 번에 걸쳐 글쓰기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다. [4]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법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③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른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⑤ 이 글에서는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따름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89) 3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덴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덴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덴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 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덴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덴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90) 3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종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91) 3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은 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덴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92) 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매 연마다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소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

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중심 대상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의 1연에서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고풍스러운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 '젖어 있다', '늘인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역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 '하늘', '별' 등에 대해 지향하는 것은 상승적인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93) 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인식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밤중에 달빛이 마당을 비춘 광경을 '홀로 보'면서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은 (가)의 화자 자신이 느낀 고독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을 통해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가)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련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의 화자도 ㉡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과거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화자가 무기력한 태도를 느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을 통해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보며 정서적 감흥을 얻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고, ㉠은 (나)의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므로 이를 통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4)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화자는 '영창'을 통해 달빛이 비치자 밖으로 나가서 '마당'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창'은 방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창' 자체가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고독한 여정인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인 '플라타너스'와의 교감을 보여 주며,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의인화하여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함으로써 사물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통해 사물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밀물'처럼 밀려온 '달'을 접하고 마당에서 달빛에 비친 '한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곳을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각각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할 때까지 '네 이웃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어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건디게 향그럽다'고 함으로써 달빛에 어우러진 사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5) 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2연은 둘째 행은 '골을 움기는 구름(구름이 골짜기 사이를 움직이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연의 마무리가 명사('구름')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답피하기]

① 이 시의 전반부에는 산골의 아침 정경이 제시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서러운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2연의 시선이 원경의 대상('구름')을 향했다면, 제3연의 시선은 '길경(도라지) 꽃봉오리'를 향해 있으므로,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⑤ 4연에서는 '죽순 돋듯'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가 온 뒤 차돌부리가 드러난 모양을 죽순이 돋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서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96) 3

작품 간의 공통점·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물소리를 듣고 이가 시릴 정도의 차가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차가움은 마지막 연의 '서러운'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서 '나'는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가 내리는 정경을 만끽하는 오묘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질로 쉽게 맛바꿀 수 없는 그 느낌은 파초에 대한 화자의 행복감,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비를 기다림', '영광스러운 일'). 따라서 ㉠의 화자와 ㉡의 '나'의 감각적 경험은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을 청각('물 소리')이 촉각('시리다')으로 전이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을 촉각('서늘함')이 시각으로 전이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에서 '구름'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지는 알 수 없고, ㉡에서 '나'는 '폭염'이 아니라 자신을 서늘하게 해 주는 '비'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④ ㉠에서 화자에게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외적 자연물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앞부분의 '다른 화초들은', '파초만은'의 구절로 볼 때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지, 공통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의 차가운 물소리를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의 '나'가 현재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97) 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챙'은 '차양(遮陽)'이라고도 하는데,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을 뜻한다. (나)에서 '챙'은 '앞집 사람'이 '파초'를 오 원에 팔고 대신 서재에 챙을 달라고 성화를 부릴 때 언급된 대상이고, '나'에게 '챙'은 파초의 비 맞는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챙'은 파초의 운치와는 거리가 먼 속물적 대상에 가까우므로, 속물적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보기>에서 말한 '자연물'이자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은 '파초'이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자연이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화자의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서러움'을 '현실의 번뇌', '초월의 어려움(좌절)'을 느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적절하다. ②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5원'과 '챙'은 거절하고 '파초' 감상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나'가 '파초' 감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함을 나타낸다. ③ (가)의 화자는 '서러운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냈으며, (나)의 '나'는 두 여름을 함께 보냈고 이제 꽃을 피운 파초를 팔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파초'와의 교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햇살, 구름, 도라지꽃, 차돌부리로 이루어진 정경은 <보기>의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의 자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의 파초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보기>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8) 5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래쉬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99) 5

비판적 사고(영상시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B, 스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0) 4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준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잃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잃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잃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술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101) 5

추론적 사고(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102) 2

103) 4

104) 5

105) 1

106) 2

107) 1

비판적 사고(작품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이의 초월적 지향이 첫 연과 끝 연에 나타나 있고, (나)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에 비해 현실의 고통에 묶여 있는 화자의 상태를 첫 연과 끝 연에서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킴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② 둘 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객관적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는 오히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가)는 호소적 어조가, (나)는 탄식적 어조가, (다)는 감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108) 2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B]의 화자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에서는 묶여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 좌절하기보다는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A]의 화자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하고 이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B]의 화자는 [A]의 화자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하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라고 말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죽음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② [A]의 화자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A]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있다. ⑤ [B]의 화자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109) 1

추론적 사고(시어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다)의 '띠집'은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벗어난 것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찾으면 '그넛줄'이 된다. '그넛줄'은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밀어 올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지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넛줄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꼬꼬리'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㉔는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 ㉕는 현실적 장애물, ㉖는 초월적 이상의 세계, ㉗는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110) 3

추론적 사고(표현 기교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생각으로는 내 분수에 맞는 일로 여겨지노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수에 맞는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므로, 자조적인 태도를 지닌 방어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원래 '나는'으로 해야 어법에 맞는다. ② 밝은데 침침하다고 했으므로 모순된 표현으로 역설법에 해당된다. ④ 천자와 자신을 비교한 것은 과장법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이다.

111) 5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꿈에서나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에서도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의 상처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미친한 신분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단순하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임과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112) 4

창의적 사고(다른 갈래로 전환하기)

정답해설 : (나)의 4연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즉 낮이 밝을수록 침침하고, 별발은 여위어가고 새는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 화면을 점차 밝게 하는 것은 시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면을 어둡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새'와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② 암울한 상황을 드러낸다. ③ '사슬 소리여'라고 했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⑤ '떠나는 새'와 '눈부신 구름'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를 상징한다.

113) 3

비판적 사고(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의 일과 관련된 벼슬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속과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을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것으로 감상한 것은 정반대로 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금쇄동의 공간을 뜻하므로 실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바위 끝 물가'는 그가 거처하면서 조성해 놓은 정원의 사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먼 뫼'가 임보다 반갑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은 현실처럼 다툼과 시비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114) 4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 '하얀 소금' 등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도 '먹오뎅빛 뒷마루'에서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행,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와 21행 이후의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이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변주라고 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으나, (나)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가), (나)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觀照)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③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간 인물이므로 성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가)는 동화적 분위기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15) 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에는 아버지가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남북통일)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로 감상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가 떠돌던 공간인 것은 맞지만, (가)의 화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사실을 슬퍼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② ㉡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으므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화자에게 ㉢은 빼앗긴 국토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남북분단의 차원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은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이 땅'을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화자가 가업을 잇는 것과는 무관하다.

116) 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집 뒤안'은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숨을 바로 하'던 공간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위안을 바탕으로 현재의 화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 뒤안'이 유년 시절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화자와 유년 시절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오답피하기] ②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만들어진 '거울'은 '뒷마루'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하는 것이 맞다. ③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찾아간 곳이 '뒷마루'이고 거기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장소이므로 위안의 경험과 관련된다. ④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⑤ 거울처럼 반짝이는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으므로 친밀감과 관련이 있다.

117) 2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흐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낚시를 하던 화자는 낚시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118) 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가)에서 화자는 산새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목적'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목적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⑤ (가)에서 물밭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낚시대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님'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119) 1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얹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를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낚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120) 2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돼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1) 2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③, 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122) 4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다)는 낚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쓴이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평생의 곱던 입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낚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쪼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을 갈겠다고 했다.

123) 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쫓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임이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임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빗취어든'은 '비치거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자가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임의 옷에 가 닿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울'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건덕궁'은 임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② (가)의 '질삼보'는 화자에게 중요하지만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나)의 '빈 낙대'는 사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로, '질삼보'와 '빈 낙대'를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우려곰'과 (나)의 '슬피 우려'는 모두 임이 아닌 화자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⑤ (가)의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 정도로 해석되며, 신의(信義)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하실까?' 정도로 해석되며,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을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4) 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7을 둘 불근 밤'은 임과 헤어져 있어 슬픈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고, '월중'은 임의 옷에 비친 그림자라도 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이다. 이들은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공산'에 거처하며 '임자 엮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오르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②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깨끗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님의 귀에 들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이별로 인한 '흔'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흔'의 정서를 형상화한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125) 2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과 '붉은 마음'이 '바위'로 형상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대상인 반면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와 [B]에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두 부분은 각각 고려 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된 작품이므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위 두어령 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라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반면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126) 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을 보면, '천 년'과 '-나들'('-나다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에서 상황의 가정을 과장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 워령통당 건너가서'에서는 황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쓰였으므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가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대조는 상반된 내용을 나란히 배열하는 표현 방법이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이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 되풀이 되는 표현 방법(예를 들어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으면 …')이다. (가)와 (나) 모두 대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연쇄법 역시 어느 작품에도 쓰이지 않았다. ④ 격정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가)는 비유와 가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격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고, (나)는 해학적 어조에 가깝다. 또한 (나)는 입을 맞이 하러 나가는 화자의 과장되고 해학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127)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된 의도와 맥락을 제시하여, (가)의 고려가요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을 풀이한다면, '바위'에 '떨어진들'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풀이되고, 이것은 다시 '천 년'을 '외따로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이 끊어질리아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28) 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사설시조의 독자가 웃음을 지으면서도 내용에 깊게 공감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착각에서 낭패로 이어지는 행동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 행동 이면의 질실함과 애뜻함 등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②는 <보기>의 사설시조의 해학성에 관한 설명을 충실히 참고했고, (나)의 화자가 한 착각과 거침없는 행동을 <보기>와 적절하게 관련지었으므로 그 이해한 바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임이 온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 저녁밥을 지어 먹었고 대문지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집 안 마당을 서성대는 것이 아니라 대문지방에 앉아 있으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는 '임'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삼대'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고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밤'에 관하여 '임'이 오지 못하게 한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웃음을 덜 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129) 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화상이 성의에게 한 말 중에, 보답존자가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라고 어제(작일에) 자신에게 분부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안평국 왕자는 성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의가 찾아올 것임을 보답존자가 화상에게 미리 일러두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라고 하면서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성이 가혹함을 알아보고 치하한 것이다. 또한 화상이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② 성의는 칠 일 재계 후에 다시 오라는 화상의 말을 듣고,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며 존자를 당장 만나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성의는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고자 일영주를 구하려는 것이 존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성의의 피리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선동이 속객을 희롱하는 것 같다고 느껴 시동에게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 따라서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뒀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⑤ 시동은 호 승상의 명을 받아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선다. 그가 혼자 나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130) 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라고 한 말은, 전세에 천상계의 존재였던 성의가 묘일성신과 갈등을 겪었고, 이번 생에 그 묘일성신과 형제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세의 묘일성신은 현세의 형 향의이다. [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의는 형인 향의가 무죄한 인명을 해치고 자신도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A]에서 제시된 묘일성신과의 전세 악연이 현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B]에서 성의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한지, 일영주를 썼는지 등을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B]에서 성의는 인자하신 어머니가 이리다가는 '황천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통곡하는 것인지 자신이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B]의 성의는 한 조각 판자에 의지하여 떠가다가 닿은 적막한 바위 위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B]에서 성의는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든 형향의 때문에 슬피 통곡하고 있으므로, 탄식을 통해 형에 대한 통탄을 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A]에서 말한 '원한을 풀 날'이란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1) 4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의 처량한 피리 소리는 눈이 먼 채로 적막한 곳에 홀로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성의의 슬픈 심사가 투영된 소리이다. 따라서 이 피리 소리는 성의가 지닌 피리 부는 재능의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두 눈을 상하고서 적막한 바위 위에서 한탄하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소리로, 성의는 이 소리가 대밭에서 나는 것임을 알고 그곳이 촉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② ㉠은 대 소리를 쫓아 내려가려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오작(까마귀와 까치)의 우짖는 소리로, 성의의 손이 짙이는 곳에 실과가 있음을 알려준 신호로 볼 수 있다. ③ 대 소리를 따라 대밭에 온 성의는 ㉢을 듣고 그 대를 더듬어 찾아, 칼로 베어서 피리를 만든다. ⑤ 피리를 불며 심회를 달래던 성의는 ㉢을 들은 호 승상 일행과 만나게 된다.

132)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존자는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의가 올 것임을 화상에게 미리 알리고, 오는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 것이니 칠 일 동안 재계하고 나서 오라는 말을 한 것은 존자가 아니라 화상이다. 또 성의는 권선징악적 성격을 지닌 이 작품에서 선악 대결 당사자 중 선인에 해당하므로 존자가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부정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하계와 대립되는 천상계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금강경과 같은 불경이나 염주 등은 물론이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인 존자(尊者)도 불교적 소재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소설이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④ [B] 부분에 드러나 있는 성의의 탄식은 가족의 일원인 형 향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세가 그토록 처량하게 되었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⑤ 성의가 어머니의 병을 구원하려고 일영주를 얻으러 서역까지 간 것은 <보기>에 제시된 대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